▨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현대불교 - 생명나눔회 공동캠페인

"모두 한뿌리이니 더불어 살아야"

◇ "고통받는 이웃과 삶을 나누자"는 대행스님의 법문(사진왼쪽)에 따라 한마음선원 캠페인에서는 많은 신도들이 서명에 동참했다.

9월 법회-안양 한마음선원

장기기증 51명·화장서약 548명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와 본사가 연중 캠페인으로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실천 대법회가 지난달 19일 안양 한마음선원에서 거행돼 간일 법회로는 최대인원 동참을 기록했다.

정기법회와 함께 열린 한마음선원 캠페인에는 부산 광주 울산 대구 대전 등 전국 12개 지원의 신도 3천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 부부와 가족단위의 참석자들이 많아 가을나들이의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51명이 장기기증을, 548명이 화장유언을 서약하는 등 모두 599명이 동참했다. 특히 51명의 장기기증자중 5명이 생전 골수기증을, 3명이 생전 신장기증에 서약하는 등 지금까지 열렸던 어느 캠페인보다 다양한 분야의 동참자가 많았다.

생명나눔측에서도 서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 다른 캠페인때보다 일찍 서명대를 설치하고 평소 2~3명만 배치했던 자원봉사자를 7명으로 늘려 배치하는 등 열의를 보였다.

또한 곳곳에서는 신도들끼리도 서로 캠페인에 참여하자는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법회에서 한마음선원장 대행스님은 '고통받는 이웃과 내가 둘이 아니다'는 의미가 담긴 법문으로 불자들을 숙연케 했다. 대행스님은 "모든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이며, 주고 받는 것이 둘인것처럼 생각되지만 실은 주고 받는 그 순간 하나가 된다"며 "우리 삶에 있어서 바로 둘이 아닌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은 삶을 값지게 하는 뜻깊은 일"이라고 법문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이모저모

가족불자 참여 많아

○…부부와 가족단위의 참석자가 많았던 이날 법회에서는 이들의 캠페인 참여도가 높아 눈길을 끌었다. 서울에서 온 이성웅(65)·방정식(60)씨 부부는 함께 온 딸과 사위 네 식구가 모두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명. 또 강방근(35)·황경희(31)씨 부부와 박춘봉(40)·정옥희(34)씨 부부 등 20여 부부가 캠페인에 동참했으며, 특히 강방근씨는 생전 신장 및 골수기증을, 아내 황경희씨도 골수기증에 서약해 생명나눔측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받기도.

자원봉사자도 화장서약

○…이날 법회는 참석자가 많은 탓에 주변 주차정리를 위해 신도 30여명이 자원봉사경비에 나서기도. 이중 서울에서 온 윤기수씨(50)는 자원봉사 활동중 한마음선원 경비원인 박정상(38)씨와 함께 나란히 사후 화장서약에 서명했는데, 두 사람은 "평소에도 가족들에게 사후에 화장을 해달라고 말해왔는데 마침 생명나눔에서 캠페인을 벌여 기꺼이 동참하기로 뜻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투병동료 생각나 동참

○…서울에서 온 회사원 홍성기씨(44)는 회사 동료중 투석을 받으며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동료를 생각하니 서명대를 그냥 지나칠 수 없다며 사후 장기기증과 화장유언에 서약하기도. 또 법회 안내를 맡아 숨돌릴 틈없이 바쁜 중에도 김선화씨(39)와 이경숙씨(46)가 화장유언에 서약하고는 재빨리 제자리로 돌아가 보는 이의 웃음을 자아내기도.

서명대 늘어선 행렬 눈길

○…대행스님 법문이 끝나고 법당을 빠져 나온 신도들이 캠페인 서명대 앞에 10여명 이상씩 줄을 서 생명나눔 관계자들을 뿌뜻하게 만들기도.

이같은 장면은 지금까지 다른 캠페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 생명나눔의 원석준 사회복지사는 "많은 신도들이 동참하는 모습을 보니 일요일에도 쉬지 않고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며 서명하는 신도들에게 일일히 "고맙습니다"를 연발하기도.

2층선 '법당 증축' 서명

○…이날 법회에서는 생명나눔캠페인 외에도 2층법당 입구에서는 또다른 서명캠페인이 전개되기도. 이 서명캠페인은 한마음선원이 합법적으로 추진중인 건물증축을 둘러싼 이웃주민들의 반대에 대해 이들의 터무니없는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신도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자는 취지로 열린 것. 이 서명대에서도 생명나눔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신도들이 많이 몰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분히 서명이 이뤄지기도.

"남의 생명이 곧 내 생명"

선원장 대행스님 법문

우리는 살면서 고(苦)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한생각 돌이키면 바로 그 고가 자신을 승화시켜준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를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닥칠 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이 경험이고 여기에 끄달리지 않게 되면 고도 고가 아니게 됩니다. 고통은 마음이 가두고 가두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고통은 없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으로 여기기 때문에 고통일 뿐입니다. 고통이 없고 있고를 둘로 보지 말아야 하며, 이렇게 길을 찾아나서면 모든 마음이 서로 통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수행이고 공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의 모습을 자기인줄 알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의 진정한 자기는 보이지 않고 말할수도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나와 상봉해 보세요. 서로 통하게 되고 세상 모든 것이 자기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이 둘인 것 같지만 실은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둘이 아니라는 것은 말로써가 아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의 뿌리는 한 순간 서로 합쳐지게 돼 있습니다. 마음을 놓고 준다는 생각없이 나누어 보세요. 가는 줄 모르고 가고, 오는 줄 모르게 오게 되고 그래서 둘이 아닌 줄 알게 되면 준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게 됩니다. 모두가 한 뿌리인데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았겠습니까.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내 물건이 남의 물건이니 이런 생각 하나가 만물을 살리고 그 이치를 터득하게 합니다.

우리는 사는 게 없이 삽니다. 그러니 내 자신이 따로 있을 수 없지요. 우리는 그냥 종자일뿐 인연따라 가고 옵니다. 여기에 집착이 있을 수 없으며 애지중지해서도 안됩니다. 인과응보의 도리를 안다면 어찌 나와 남의 구별이 있겠습니까. 마음 쓰는데 마다 한마음이 돼야 합니다. 들고 나고, 나고 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스스로의 자기를 바라보고 좋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도 나 하나로만 보면 안되듯이 말입니다.

동참자 명단

장기기증서약(51명)

강방근 고은주 고필선 권선행 권정숙 김경연 김금옥 김성자 김윤성 김형기 류현숙 박경덕 박규환 박기임 박성례 박성수 박순옥 박영애 박용숙 박춘봉 배준우 서지연 송미영 심복신 심숙희 안석순 윤영인 이기영 이랑애 이위숙 이응호 이정임 장삼수 전복순 전승희 정영숙 정옥화 정용태 정의진 정재환 조규범 조순지 진옥례 청담스님 최정화 태동석 한경자 한용수 황경희 황영숙 황향숙(세부내용:▲사후 각막기증 서약 47명, ▲뇌사시 장기기증 서약 44명, ▲사후 시신기증 서약 36명, ▲생전 골수기증 서약 5명, ▲생전 신장기증 서약 3명)

화장유언서약(548명)

강경희 강귀화 강만석 강방근 강상욱 강상호 강선화 강신흥 강신홍 강오순 강옥자 강정숙 고건화 고은주 고재숙 고필선 고화자 고회원 곽금연 곽춘자 구명순 국창래 권경란 권근모 권명순 권민정 권선행 권영순 권오광 권오삼 권은숙 권이신 권정숙 권정임 권지현 권진순 권진혜 권기민 김 호 김광삼 김귀매 김금선 김금순 김금옥 김금천 김금희 김남선 김남오 김달원 김동난 김동자 김동휘 김말순 김명숙 김명애 김명자 김명현 김명희 김문조 김미숙 김미자 김미정 김미화 김민경 김병익 김복재 김선화 김성식 김수현 김순련 김순분 김순애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엄 김시교 김애주 김연자 김영만 김영숙 김영숙 김영애 김영자 김영자 김영진 김영희 김영희 김영희 김옥성 김옥정 김외선 김용숙 김용순 김용자 김용호 김운신 김유선 김윤성 김윤주 김은희 김의청 김인자 김일심화 김재성 김재옥 김점수 김점순 김정란 김정신 김정애 김정옥 김정인 김정자 김정자 김정희 김정희 김종숙 김종희 김중선 김증연 김진미 김진순 김차숙 김태순 김향신 김헌옥 김현아 김형규 김형기 김형열 김혜경 김혜숙 김혜원 김혜자 김홍록 김희성 김희화 남기희 남명숙 남춘우 노갑연 노봉임 노영님 노옥련 노옥순 도경준 도새준 류현숙 문나형 문승의 문정순 문주형 민경숙 민숙자 박경숙 박광호 박규환 박기님 박대근 박명식 박명자 박명희 박무순 박미림 박상숙 박상우 박선희 박성례 박성수 박순득 박순옥 박순진 박언조 박영애 박영자 박용숙 박용환 박우나 박장외 박정례 박정상 박종화 박죽선 박춘봉 박춘선 박현숙 박형숙 박혜진 반명희 방문석 방정식 배경숙 배미숙 배재일 배준우 배진숙 배현관 백갑현 백균우 백길수 백길수 백승민 백승자 백승진 백종만 백길용 변춘섭 봉종욱 봉하신 사공영선 서경원 서경자 서내순 서범석 서복희 서부성 서상중 서영수 서옥순 서은주 서재영 서정현 서지연 서청자 서태순 성경순 성영애 성지은 손숙자 손순옥 손영효 손정숙 송미영 송불심 송시화 송정희 송창이 송춘가 신동식 신임연 신재순 신재철 신적자 신정자 신현주 심복신 심상준 심숙희 심승웅 심영자 심장수 안삼영 안석순 안성애 안성자 안수환 안신희 안영숙 안우현 양수광 양영희 양임정 양회숙 엄남태 엄영자 엄용자 엄정임 엄정임 엄춘득 여인길 염효란 오세원 오운쭈 오장현 오정애 왕기빈 우연희 우익환 원미원 원향희 위성환 유국현 유신욱 유영숙 유영자 유정은 유준근 유형숙 윤경순 윤기남 윤기수 윤란영 윤명한 윤상민 윤소희 윤순희 윤여형 윤영선 윤영인 윤영자 윤유미 윤은석 윤호건 윤화순 이 씨 이갑희 이경대 이경해 이군자 이규남 이기숙 이기연 이기영 이기정 이남석 이대섭 이동준 이동호 이동환 이동희 이랑애 이미경 이미숙 이민순 이반임 이병달 이보심 이복실 이봉수 이봉순 이석택 이선옥 이성규 이성웅 이세우 이순덕 이순업 이순옥 이순재 이순희 이승향 이시형 이영희 이욱주 이용권 이월례 이월숙 이위숙 이은자 이은화 이응호 이자혜 이재영 이재철 이점숙 이점숙 이정규 이정남 이정숙 이정아 이정옥 이정임 이종립 이종옥 이준석 이준재 이준환 이지연 이지윤 이지혜 이진환 이창선 이춘복 이태호 이한희 이현선 이현정 이형우 이훈로 임금지 임기훈 임병세 임석춘 임인자 임정숙 임정혜 임창희 임혜림 임혜옥 임화자 장경애 장경은 장명자 장복남 장삼수 장석분 장세황 장순임 장승원 장영옥 장영재 장축자 장혜경 전복순 전상용 전숙경 전숙희 전승원 전승희 전이분 전정자 전진수 전창배 전해남 정교현 정금희 정기용 정덕업 정무현 정미영 정세연 정세윤 정순아 정영숙 정영자 정오순 정옥찬 정옥화 정용태 정의진 정인숙 정재환 정재현 정종섭 정진순 정차효 정해상 정혜란 정혜영 정희정 조귀연 조규범 조금례 조금숙 조길자 조난수 조덕상 조등석 조말희 조미숙 조미진 조병학 조성삼 조성준 조소영 조수신 조순지 조영숙 조용순 조원순 조유진 조재룡 조정기 조정현 조철규 조하원 조한봉 조향미 주미숙 지순배 진선경 진옥례 진옥자 진임주 차병숙 차영희 채순임 채재수 천영자 최경희 최귀숙 최규순 최도영 최동호 최명희 최미숙 최봉례 최성철 최숙자 최순희 최양순 최영란 최영자 최용석 최용준 최윤희 최은정 최인자 최점순 최정숙 최정관 최하용 추경석 탁경숙 태동석 표대규 하근수 하선옥 하정숙 한장우 한경숙 한경자 한복희 한상순 한용수 한영순 한정선 한종훈 한청찬 한화윤 허선복 허수자 허숙자 허영자 현외주 홍미애 홍민자 홍상률 홍성기 홍은란 황미경 황미경 황보경숙 황선숙 황성균 황순수 황애란 황영숙 황영자 황울용 황의숙 황인형 황정자 황해순 황향숙 황향숙 황호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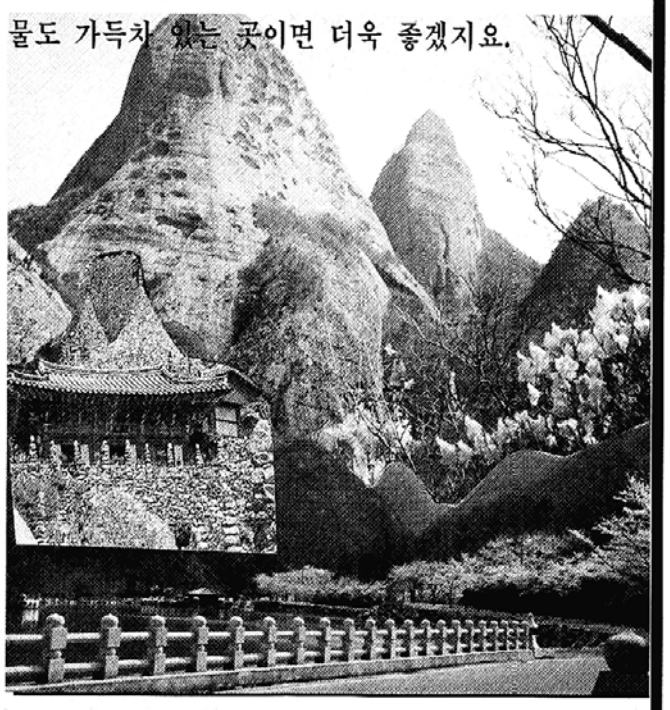
◆(사)생명나눔실천회는 장기기증 및 화장유언 서약에 뜻을 같이하는 분들의 동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의 및 접수는 (02)734-8050

관광을 겸한 방생 어디가 좋을까!

기왕이면 경치도 좋고 물도 가득차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신비의 마이산탑사

—탑영제 방생—



· 관광과 방생을 한 곳에서 ·

한국의 불가사의 만불탑의 오묘한 신비,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 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탑영제 방생기도

진안 마이산 탑사
전화(0655)433-2900, 0303
(0655)432-0652, 0072

■약도

짧은 이야기 - 긴 깨달음

작은 이야기 속에서 큰 깨달음을 얻어 보지 않으시렵니까?
여기, 자신있게 권할 수 있는 3권의 책이 있습니다.

제1권 ❁ 행복 의 문을 여는 이야기
제2권 ❁ 사랑 의 꽃을 피우는 이야기
제3권 ❁ 수행 의 강을 건너는 이야기

행복·사랑·수행·지혜·죽음이라는
삶의 다섯 가지 주제를,
불경(佛經)과 고서(古書) 속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보배로운 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이 조명해 봅니다.
'바라만 봐도 복이 오는' 아름답고 귀한 변상도(變相圖)와 함께
이야기 하나하나에 깃든 참된 의미를 되새겨 보노라면,
'하나뿐인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미래 엮음
200쪽 내외
각권 4,500원

② 빨간책 ① 노란책 ③ 파란책

오색시리즈(전5권)
제4권(하얀책) 『지혜의 길로 이끄는 이야기』
제5권(까만책) 『죽음의 재를 태우는 이야기』
가 곧이어 출간됩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면 출판사로 연락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한세
전화 : 02)3219-6441 팩스 : 02)653-4611